

39.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고백

찬 송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요한1서 3장 13~24절

말씀묵상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것처럼, 악한 세상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1. 세상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13~15).

‘형제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삶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1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만백성을 살리기 원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백성답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3.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17~19).

실제적인 행동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이 존재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랑임을 알게 되며,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맺는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적용

형제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공동의회 결과 안내

지난주일 장로피택 및 장로복직에 대한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복직] - 박심원 장로님, 임완민 장로님

[피택] - 최진수 집사님

2. 창립 118주년 기념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

다음주일(10월 2일)은 둔전교회 창립 1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일 창립 기념예배와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으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기념예배] - 10월 2일 오전 11시

[담임목사 취임식] - 10월 2일 오후 3시

3.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4. 대입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보기도

대입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수험생: 강민서, 김주원, 이체영, 조예은) 대입과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과 청년들을 교역자들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

-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해주실 봉사자께서는 교역자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남신도회 교회 대청소 안내

10월 1일(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남신도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회소식

성남시찰회 - 29일(목) 오전11시 위례창곡교회

♣ 교우소식

[헌물] - 박심원 장로님, 임완민 장로님, 최진수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 목 사 :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시무장로 : 박심원 임완민

지 휘 자 : 박경미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